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문 생

2021년 8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김 성 봉

양 문 생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6월

양문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최보영 

위 원 백정환 

위 원 김당봉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년 8월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양 문 생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검증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 및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작용을 하는가? 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5 곳을 통해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산출 및 사용된 각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는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향후 후속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 목 차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3. 연구모형 .....	7
4. 용어의 정의 .....	8
<b>II. 이론적 배경</b> .....	10
1. 부모양육태도 .....	10
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	10
나.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	11
2. 스마트폰 중독 .....	13
가. 중독의 의미 .....	13
나. 스마트폰 중독 개념 .....	14
다. 스마트폰 특성 및 중독 현황 .....	15
3. 자기효능감 .....	16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	16
4. 각 연구변인과의 관계 .....	18
가.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	18
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	20
다.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	21
<b>III. 연구방법</b> .....	23
1. 연구대상 및 절차 .....	23
2. 측정도구 .....	23
가. 부모양육 척도 .....	24
나. 스마트폰 중독 척도 .....	25
다. 자기효능감 척도 .....	26

3. 자료처리 및 분석 .....	27
<b>IV. 연구결과 및 해석 .....</b>	<b>30</b>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0
2.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	30
3. 주요 연구변인 간의 기술통계 .....	32
4. 주요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	33
5.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34
6.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35
7.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36
가.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스마트폰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36
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38
다. 성취압력(과잉-비과잉) 양육태도와 스마트폰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40
<b>V. 논의 및 제언 .....</b>	<b>43</b>
<b>참고문헌 .....</b>	<b>51</b>
<b>Abstract .....</b>	<b>59</b>
<b>부록 .....</b>	<b>61</b>

## 표 목 차

표Ⅲ-1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	25
표Ⅲ-2 스마트폰 중독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	26
표Ⅲ-3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	27
표Ⅳ-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30
표Ⅳ-2 연구대상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	31
표Ⅳ-3 연구대상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	32
표Ⅳ-4 주요변인들간의 기술통계 .....	33
표Ⅳ-5 주요변인들간의 상관관계 .....	34
표Ⅳ-6 부모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35
표Ⅳ-7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36
표Ⅳ-8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37
표Ⅳ-9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38
표Ⅳ-10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	39
표Ⅳ-11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40
표Ⅳ-12 성취압력(과잉-비과잉)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 .....	41
표Ⅳ-1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	42

## 그림 목 차

그림 I -1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매개모형	7
그림Ⅲ-1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단계	28
그림Ⅳ-1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모형	38
그림Ⅳ-2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모형	40
그림Ⅳ-3 성취압력(과잉-비과잉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모형	4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출현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빠르게 변화시켰다. 인터넷과 결합한 스마트폰의 발달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전 세계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데이터 전송 및 쇼핑, 게임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제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Chang & Cho (2014)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기능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생활을 편리하게 해줄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사용으로 인한 역기능적 측면 역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 과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시력이 저하되고, 상지 통증, 거북목증후군, 이명,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이 신체적 부작용 뿐 아니라 불안, 초조감, 주의 집중력 저하, 의존과 같은 심리·정서적 부작용 및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 소홀 등의 대인관계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몰입으로 인해 의존, 내성, 금단, 불안 등이 유발되는 중독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특히 스마트폰 중독 증세는 유,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보다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 기기는 그 자체가 편리성, 즉각성, 감각추구, 소통 등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의 특성은 청소년 발달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자제력이 부족한 유, 아동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3세-69세 대상) 23.3%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며 이는 전년 대비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상별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10-19세) 35.8%, 유아동(3-9세) 27.3%, 성인 22.2%, 60대이상 16.8% 순으로 조사되었다. 년도 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동은 2018년 20.7%, 2019년 22.0%, 2020년 27.3%이며 청소년은 2018년 29.3%, 2019년 30.2%, 2020년 35.8%로 나타났으며 성인은 2018년 18.1%, 2019년 18.8%, 2020년 22.2%, 60대이상은 2018년 14.2%, 2019년 14.9%, 2020년 16.8%로 나타났다. 이는 전 연령대 중 유아동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볼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 저연령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 중독률은 성인보다 유아동, 청소년에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먼저 청소년은 개성이 뚜렷해지고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한 시기로 스마트폰을 통해 어딘가에 속박되지 않고 타인의 구속, 제재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기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스마트폰에 빠지게 된다.

둘째, 청소년은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대한 욕구와 그러한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Zuckerman, 1994)려는 특성이 있다. 노웅철 (2005)에 의하면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청소년기는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접촉이 더욱 많이 나타난다 고 하였다. 자극추구의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충동성과 통제력에 어려움을 보인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두드러지는 자극추구성향은 새롭고 흥미로운 많은 경험을 제공해주는 스마트폰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김보연(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는 호기심이나 충동성이 매우 높아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제력까지 약해 스마트폰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청소년기는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로 자신만의 욕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어 스마트폰의 유희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넷째 청소년기는 또래집단과의 동조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친구가 하는 것을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박훈미(201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 할 수 있어서 친구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이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신체적 부작용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며, 결국 현실에서의 자기부정, 자기실현의 좌절로 인하여 성적 저하, 학업, 소홀, 친구 수의 감소, 대인관계 회피 및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더 나아가 학교 및 사회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특히 전두엽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 어린이가 스마트폰 자극에 자주 노출되면 뇌가 균형있게 발달하지 못해 산만함과,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빠르고 강한 정보에만 반응할 뿐 느리고 무감각하게 변화하는 현실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무감각하게 되는 “팝콘뇌(Pop-Corn Brain)”를 유발시키기도 하여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에 따른 일탈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이러한 부적응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이며 동력의 원천인 유아동,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져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없다면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기관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스마트폰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 방법은 일반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우려가 시사됨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수준의 환경 및 개인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개인적 변인들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에는 우울, 충동성, 스트레스, 외로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대인관계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고, 환경적 요인에는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 등이

있다(진은희, 이경순, 2017). 먼저 환경적 요인 중에서 특히 부모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병년, 최홍일(2013) 진은희, 이경순(2017)의 연구에서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일차적인 역할을 하고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치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치관, 신념,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인지, 사회, 신체발달 및 성격형성에 증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부모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된 자녀의 행동적 특성은 스마트폰 사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부모가 자녀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는 방식의 양육태도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부모의 기준에 따라 훈육하고 처벌하게 된다. 이 경우 자녀는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 낮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와 스트레스, 낮은 자기효능감은 현실세계의 무력감을 보상받기 위해 가상세계에 몰입하는 이유가 되며, 이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잃고 과도하게 몰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부모가 자녀를 귀찮아하거나 양육에 드릴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부모의 방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욕구나 행동에 별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히려 자녀가 장시간 조용히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한다. 이 외에 자녀에 대한 꾸지람의 기준으로 비일관성을 보이는 양육태도인 경우 자녀는 부모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 늘 눈치를 보며 긴장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과 긴장으로 인해 자녀는 깊이 있는 지식이나 사고의 융통성을 발달하지 못하고 아주 간단한 정보들만 취득하려고 한다. 자녀의 이런 불안이나 긴장 인지, 행동적 특성 등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위협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가상 세계를 활용하게 되고 단순한 오락적 욕구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점점 더 몰입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거나(황승일, 2013), 과보호적일수록(김병년 외, 2013), 부모의 감독이나 지시행동이 많을수록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조춘범, 2001). 뿐만 아니라 부모의 과잉간섭기대,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의사소통에 몰

입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워진다고 하였다(백소진, 오홍석, 2014; 진은희, 이경순, 2017).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청소년이 모두 스마트폰에 중독되지는 않는다. 개인의 가치관, 인지양식, 지존감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행동양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이성대 외, 2013)으며 인간의 행동특성은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신념, 가치, 자기통제력 등과 연관되어 진다. 이 중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인의 심리 성향(Bandura, 1982)으로 이는 오랜 기간 가정환경 및 부모양육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노호은(2000)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정근(2002)은 아동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성취 지향적이고 친애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었고 방임이나 폐쇄적인 양육행동은 부적인 상관관이 있다고 하였다. 윤희령, 안세지, 김성희(2017)의 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최초로 관계를 맺은 타인인 부모와 어떤 관계적 질을 형성하느냐에 따라 아동의 심리·정서적인 안전기지가 형성된다.

안전기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아동이 외부적 환경에서 실패나 실수, 부정 감정을 경험해도 돌아갈 수 있는 공간, 즉, 심리·정서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로부터의 심리·정서적인 안전기지가 형성된 아동들은 어떤 목표나 일을 끝까지 수행해낼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휴대폰과 인터넷 등 미디어기기의 중독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인으로 여겨지고 있다(용상화 2013; 이장형, 김종원, 성백춘, 최영진 2013; 최영철, 2016). Woo(2007) Kim, Kim & Jeong(2012)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또한 Ryu(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지향과 금단 성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는 일을 극

복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적고 자신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나 내성, 강박, 금단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부작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여 쉽게 중독 증상에 빠지게 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Woo, 2007).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며 이때 자기효능감 또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본 연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은 다른 연령대보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률이 높고 외부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초등학교 시기보다 부모의 양육으로부터 덜 의존적이며 사고와 자아의 기능이 정교화 되어가는 시기로 변화 가능성도 커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에서 이들을 위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실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학교현장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킬 필요성을 부각하고 정책적 대안 및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모색해보려고 한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때 자기효능감이 매개할 가능성에 대해 증명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가설 1.**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비과잉 성취압력적이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가설 2.**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작용을 하는가?

**연구가설 3.**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비과잉 성취압력적이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낮출 것이다.

###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그림 I-1의 연구모형을 통해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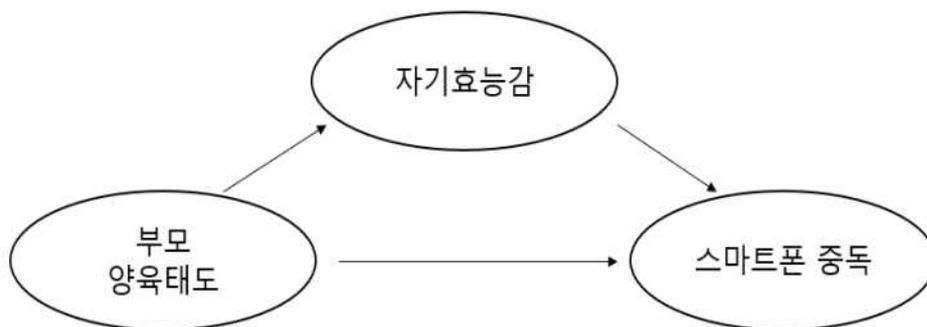


그림 I-1 중학생의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 4. 용어의 정의

### 가.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 즉,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의 하나로 설명하였다. Fishbein(1975). 즉,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자녀에게 보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부모의 정서, 인성, 가치관, 태도, 교육관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포함이 된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비교적 일관성 있게 보편적으로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문화방식으로서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강성일,2008).

부모양육태도 유형은 부모-자녀의 성별 및 성격,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보고되고 있다(우영숙, 2008).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김기정(1984)이 구분한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세 가지 양육태도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김기정(1984)이 제작한 부모양육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나.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김보연(2011)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에 따른 의존, 내성, 초조, 불안, 금단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장애나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중독은 한국 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자가 진단 척도인 S-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다.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박현미 2013)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으로서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기나 인지적 원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개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다. 그리고 성공에 필요한 인지와 신체, 감정의 원천을 움직이게 하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정은(1997)이 개발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척도의 구성요소로는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로 이루어졌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부모양육태도

#### 가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치되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가치관, 행동 등을 말한다.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태도와 규칙을 배우고 다듬으며 평생을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및 성격형성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영향의 가장 큰 제공자는 바로 부모라고 할 수 있으며,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인간관계 및 인생의 과정을 배우게 되면서 부모를 인생의 모델로 삼고 있다.

양육태도에 대한 학문적인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Fishbein(1975)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작용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질이 결정되고,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 및 성격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숙 외, 1998). 이에 정소영(2006)의 연구에서는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도덕관념이 발달되고 공격 성향이 낮은 반면, 거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제행동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지적 및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아동의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다(W. C. Backer, 1964). 파커(J. G. Parker, 197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여러

요인들로 분석하는 연구들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발견하였고, 지각된 애정을 의미하는 돌봄과 지나친 통제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과잉보호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시몬즈(P. M.Symonds, 1949)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해 양극 차원인 수용과 거부, 지배와 복종으로 분류하였다. 수용적인 부모는 자녀를 과보호하며 의존성을 높여 사회적 발달을 지연시키고 거부형 부모는 욕구발달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자녀를 세심하게 양육하지 못하게 된다. 지배형 부모는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독립적 사고가 부족하다. 복종형 부모는 자녀가 부모의 요구를 따르는 것, 그 자체에 만족감을 얻게 된다.

최우기(2007)는 양육태도란 자녀를 보살피고 보호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이며 애정적 태도,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로 나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들의 자아효능감, 학습동기, 학업성취도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강성일(2008)은 양육태도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체적으로 일관적·보편적으로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고 문화방식으로 정서적 성장 발달과, 자녀의 지적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미란(2012)은 부모자녀간의 초기경험은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 등을 비롯한 성격형성의 전반적인 부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며, 부모와 자녀간의 유대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문제발생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성격발달, 지적·정의적 특성, 사회적 성장, 심리적 만족과 성숙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행동특성이다. 이는 자녀인 청소년의 사고, 정서뿐만 아니라 성격형성 및 행동의 변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 및 부모양육태도는 인간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친다.

## 나.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은 부모-자녀의 성별 및 성

격, 부모의 사회적 지위 및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자들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보고되고 있다(우영숙, 2008)

Symond(1949)은 양육태도에 대해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으로 그는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세분화 하였는데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으로, 거부는 소극적인 거부형과 적극적인 거부형으로,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은 억제형과 복종형으로 구분하였다. Becker(1964)는 온정-적대, 제한-허용 차원으로 나누었으며, Baumrind(1971)는 권위적, 민주적, 허용적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차원에서 분류하였다. 김기정(1984)은 Rogers와 Coopersmith, Yamamoto 등의 이론을 배경으로 정원식의 가정환경 진단검사, 오기선의 부모와 자녀관계 진단검사, 오성심과 이종식의 양육방식의 지각 검사 등을 참고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의 세 가지 양육태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김기정(1984)의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각 하위요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수용/거부적 양육태도에서 수용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녀의 감정과 의사를 수용적으로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태도이며, 거부는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무관심 소홀리함을 보이며, 자녀의 과오에 비난과 체벌을 자주 사용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둘째, 자율/통제적 양육태도에서 자율은 부모가 자녀의 의사나 권리를 존중하여 자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여 책임감을 갖는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통제는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간섭하며, 부모의 일방적인 지시에 복종하도록 요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취압력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의 능력을 과잉기대하여 좋은 성적과 성공적인 직업과 미래를 강조하는 강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 2. 스마트폰 중독

### 가. 중독의 의미

중독(Addiction)이라는 단어는 “~에 사로잡히다”, “~의 노예가 되다” 라는 의미인 라틴어 ‘addacere’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독 현상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중독은 ‘생체가 음식물이나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로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중독이 물질 사용에 있어서 통제력이 손실된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김교현, 2007).

중독의 의미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의미의 범위도 차츰 변화되고 있는데 과거 중독을 특정한 물질에 의존하는 즉, 알코올과 마약류를 중심으로 행해졌던 물질 중독을 의미하였으나 최근 IT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음란물, 게임, 쇼핑 등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다른 부작용으로 특정 행위에 의존하는 행동들의 심각성이 부각되었다(우상우 외, 2010) 이에 따라 행위 중독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중독의 개념이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혜경, 2008; 유홍식, 2013). 이와 같이 중독의 의미가 확정됨에 따라 여러 학자들은 중독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다. 이에 미국정신의학회에서는 DSM-IV-TR (APA, 2000)을 통해 중독대상을 기준으로 물질에 대한 중독과 행동중독으로 나누어 중독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물질중독은 ‘물질관련 장애(substance-related disorder)’가 있으며 물질관련 장애에는 ‘물질사용 장애(substance use disorder)’물질로 유발된 장애(substance induced disorder)’로 구분되며, 물질사용 장애에 하위범주에는 ‘물질의존’과 ‘물질남용’, 물질로 유발된 장애의 하위 범주에는 ‘물질중독’과 ‘물질금단’이 있다. DSM-IV-TR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중독에는 충동조절장애(Impulse control disorder)가 있으며 하위범주에는 ‘병적 도박’, ‘병적 도벽’ ‘병적 방화’ ‘발모광’ 및 ‘간헐성 폭발성 장애 등이 포함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범주에서도 중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Goldberg(1996)는 중독

을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DSM-IV의 물질중독 기준을 준거하여 인터넷 중독 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young(1998)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을 판별할 수 있는 8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주리 허경호 (2004)의 휴대전화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Egger & Rauterberg(1996)의 이론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중독이란 ‘휴대전화 사용에 몰입하여 사용에 대해 통찰력을 상실하고,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현상’ 이라고 정의하면서 ‘중독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 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강희양, 박창호(2012)의 연구에서도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매체중독을 행위중독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중독은 어떤 특정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스스로 쾌락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서 중독적인 물질 없이 불가능한 어떤 특별한 경험에 의존함을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을 행위중독의 범주로 제시함에 따라 다양한 중독의 개념을 스마트폰 중독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적용해 볼 수 있다.

#### 나. 스마트폰 중독 개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작용 및 역기능의 심각성이 주목되면서 다양한 인과관계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2014)에서는 과도한 몰입으로 의존, 내성, 금단, 초조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한다. 김보연(2012)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스마트폰에 지나친 의존, 몰입한 나머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그에 따른 의존, 초조, 불안, 금단 증상으로 일상생활의 장애나 불편을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병년(2013)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에 지나친 사용과 몰입으로 스스로 통제를 상실해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에 의존성이 높아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심리적 불안함을 느끼는 상태로 현실 세계보다는 가상공간에

서의 대인관계 형성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이를 추구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박용민(2011), 박지선(2012), 류경희(2014)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의 중독개념을 '휴대폰중독'의 정의에 입각하여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이용증가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의 특성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사용의 몰입, 둘째, 건강 및 인간관계, 학업, 직업 등에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주는 생활 장애. 셋째, 스마트폰이 없으면 견디기 힘든 심한 불안과 초조로 긴장감을 느끼는 강박 증상, 넷째, 이용증가에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통제 상실이다.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의 네 가지 특성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의 과다한 몰입 및 의존으로 인하여 이용증가에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 시 심한 불안, 초조로 불편함을 느끼면서 건강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계속 지속하려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 다. 스마트폰 특성 및 중독현황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정의와 역할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09)에서는 스마트폰을 '음성 통화를 기본으로 무선인터넷 기능과 컴퓨터 기능이 보장된 고급형 휴대전화'로 정의하고 있다. 고재욱(2013)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을 '휴대전화 기능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처리 등 컴퓨터의 기능이 추가되면서 무선 네트워크나 Wi-fi를 통해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 및 검색이 가능하며, PDA 시청 및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게임과 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단말기'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기존의 휴대전화에서 컴퓨터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사용자 지향적인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Wi-fi의 자유로운 이동통신망 및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활용을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이자 기존의 휴대전화와의 차이라 할 수 있겠다. (박용민, 2011)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폰의 특징은 사용이 간편하고 편리하며 유용성 및 다양한 활용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점차 과도한 몰입과 의존적인 사용이 지속되는 스마트폰 중독적 사용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청소년들의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도 급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세-69세 대상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의존 비율이 전년 대비 3.3p 증가한 23.3%로 나타났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유아동 과의존 위험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청소년(만 10-19세)은 고위험군 35.8%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볼 때 스마트폰 과의존이 저연령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2020)의 전국 초(4학년), 중(1학년), 고(1학년)학생 129만여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에서도 인터넷중독 위험군 18만여, 스마트폰 중독률이 12만 2천여 명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은 매년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 주 이용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영화, TV, 동영상이며,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군간 이용률이 가장 큰 차이는 게임으로,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군보다 11.3%p 높게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 3. 자기효능감

####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andura, 1977). 또 다른 정의는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 필요한 동기적, 인지적 원천 및 행동의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판단의 행동뿐만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주며 사고유형과 정서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과제 지속력이나 노력과 같은 과업수행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구체적인 도전적인 과제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끈기를 가지고 과제를 지속하려는 경향을 지닌다(조승우, 1997).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과제수행에 앞서 의기소침하며 폭넓은 시각을 갖지 못하고, 문제를 실제보다 더 어렵다고 믿어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된다고 하였다(변혜선, 한동균, 이선로, 2014).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아존중감, 자신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선혜(199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혹은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자신감은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강도를 의미한다. 이와 다르게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남미숙, 1998).

자기효능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흥분)에 있다(Bandura, 1997). 자기효능감의 4가지 중요한 근원을 살펴보면 첫째, 성취경험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기초하여 가장 높은 신뢰도와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으로 실패경험이 반복은 자기효능감을 낮추지만, 성취경험의 반복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대리적 경험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경험과 실패경험 관찰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거나 저하될 수 있다. 자신의 능력경험 근거가 되는 과거 경험이 없을 경우 대리경험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언어적 설득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되는 격려나 칭찬 등을 통하여 자기효능감이 형성될 수 있다. 언어적 설득은 스스로의 수행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취경험보다 영향력이 약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언어적 설득으로 인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실패경험에 의해 쉽게 소거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진다. 넷째, 정서적 반응이다. 정서적으로 흥분되는 상황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성공을 기대하는 경향으로, 개인이 반응하는 정서적 상태가 자기효능감에 인지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한다.

한편 김아영(1997)은 자기효능감은 3가지 하위요소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에 대한 관찰, 반응을 해나가는 효능감이며, 과제난이도 선호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난이도 수준이다. Bandura(1977)는 낮은 자기효능감은 도전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하며, 쉽고 간편한 과제만을 선택하게 한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된 사람은 과제수행에 관한 강한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효능감이 낮게 형성된 사람은 과제수행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수행에 어려움을 보이게 된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이만제, 2009).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미래지향적 사고를 가지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위해 설정하는 목표들이 더욱 높고, 그 목표들에 대한 실행도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홍현경, 2012). 또한 장우귀 등(2007)은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을 포함하는 삶의 질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자기효능감을 자기조절 효능감, 관계 효능감, 스트레스대처 효능감, 어려움극복 효능감을 내포하는 변인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자기통제력과 학교생활적응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다고 나타났고(강혜자, 2011),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다고 나타났다(서지현, 2009).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으면 자기통제를 잘하며 학교생활 적응도 잘 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청소년인 중학생에게도 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4. 각 변인과의 관계

본 장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 자기효능감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가.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중독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과 그 심각성이 주목됨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탐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을 심리적인 요인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던 연구에서 점차 환경

적 요인의 탐색으로 확장됨에 따라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부모, 자녀의 관계는 아직 부모의 보호 하에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Rosen(2008)은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모의 통제가 높을수록(박화자, 2006) 부모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지시가 많을수록(조춘범, 2001), 부모가 지나치게 과보호적으로 자녀의 생활과 시간을 관리하고 제한할수록(박정은, 2001; 안세라, 2003), 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을수록(김경신, 김진희, 2003), 처벌과 비난이 많을수록(김지형, 2002), 자녀를 방치할수록 자녀들은 인터넷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계원, 2001)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적이며 자녀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가정일수록(김지영, 2002), 부모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인터넷의 중독에 걸릴 위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애, 2006)

부모양육태도와 휴대전화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위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통제적이고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를 인지할수록(류미숙 외, 2011), 거부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년 외, 2013).

이처럼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을 도피처로 삼게 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지지 및 위안, 심리적 만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각할수록 자녀는 더 많은 심리적 지지와 만족을 얻기 위해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매체적 특성이 유사한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연구에서도 그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간의 인과적 검증의 의미 있게 한다.

## 나.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계가 있으며 자녀가 부모의 태도에 반응해서 그들 나름의 발달을 도모해 나간다고 본다. 이는 부모가 일차적인 사회화모델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모의 평가를 내재화하여 자존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부모의 행동 및 태도를 동일시 또는 모방함으로써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도 중요한 요인인 되리라 예측된다(황혜자, 최윤희, 2003, 재인용).

양육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공인숙(1989)은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유형이 온정이 낮고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유형에 비해 아동의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노호은(2000)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박정근(2002)은 아동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성취 지향적이고 친애적인 양육행동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방임이나 폐쇄적인 양육행동은 부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승미(2006)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자녀의 인격 형성 및 긍정적 부정적 자기효능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하였고, 이송이(2006)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주적일수록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거부적이고 제재적이며 권위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기가 실제 과제를 수행해 본 결과 또는 성공이나 삶의 경험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이 달라지고 이것은 부모에 의해서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진 아동은 자기효능감도 강할 것이며 또한 주위 사람들의 평가나 설득에 의해서도 자기효능감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서 자기효능감의 형성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황혜자, 최윤희, 2003, 재인용). 이렇듯 여러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하여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청소년기는 청소년의 성격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자기행동에 수행 가능성에 관한 인지가 불리는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고 실행하는 것이 삶의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장미선, 이정연, 2003: 전은영, 2005). 자기효능감은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패턴, 각성, 궁극적인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것(Bandura,1977)으로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중독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Bandura,1982).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정보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상태나 정서적 상태 등 4가지로서, 이 정보원을 통해 획득된 정보는 인지적 평가를 거쳐 처리, 변형되어 행동을 변화시키면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성취경험은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원으로 이것은 인터넷 중독적 사용자가 현실세계에서 무기력감을 보상받기 위해서 강박적이며 가시적인 가상공간에 몰입하는 이유가 된다(이보경, 이재장,2003) 또한 인터넷 중독은 자기와 관련된 개인의 심리 내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가상 세계안에서 통제감을 느끼고 지위를 얻으면서 더욱 강화된다(송원영, 1998). 특히 청소년은 자아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많은 혼란을 겪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기 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황상민, 2000). 이들은 익명이 주는 자유로움 속에서 현실의 고정적인 실체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이러한 변화와 경험을 통해 통제감과 우월감을 경험하게 된다(김옥순, 송혜영, 1998)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정인경, 2015: 용상화, 2013: 정귀임, 2015) 특

히, 김정연과 정안경(2015)의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진숙(2015)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자기조절 효능감과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서 낮게 나타났다. 엄주리(2014)는 가상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낮고 현실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가상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고 현실세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이 낮았으며,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서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의 청소년은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자기효능감이 낮은 수준이면 스스로가 스마트폰 중독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오주, 2015)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소재의 5개 중학교 재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는 확률표집방법인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450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5개 학교들의 1. 2. 3학년 각각 한 개 반에 배부되었으며 해당 반 담임교사, 혹은 위클래스 선생님의 감독과 입회하에 반 단위로 작성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430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와 현재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405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보고식 설문방식을 활용하였으며 2021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인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다음과 같다.

## 가. 부모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김기정(1984)이 제작한 부모 양육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 척도는 자녀인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것으로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과잉-비과잉)으로 구분하였다. 수용은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와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이해하고 수용하여 격려와 칭찬을 자주하는 것이며 거부는 자녀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부족하며 이해와 수용보다는 비난과 질책을 하는 것이다. 자율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인 행동을 허용하며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 것이고, 통제는 자녀에게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를 많이 행사하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이다. 과잉 성취압력은 자녀가 항상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며, 비과잉 성취압력은 성공 지향적이지 않고 좋은 성적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문항의 구성은 수용-거부 11문항, 자율-통제 11문항, 과잉-비과잉(성취압력) 11문항으로 하여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으로 하여 Likert식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며 자율적이고, 성취압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전체가 .9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수용-거부는 .86, 자율-통제는 .79이었으며, 과잉-비과잉 성취압력은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해당 문항 번호는 표Ⅲ-1과 같다

표Ⅲ-1 부모 양육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부모 양육태도	수용-거부	1, 4, 7(R), 10, 13, 16, 19, 22, 25(R), 28, 31	11
	자율-통제	2(R), 5(R), 6(R), 8(R), 11(R), 14, 17(R), 23(R), 26, 29(R), 32(R)	11
	과잉-비과잉(성취압력)	3(R), 9(R), 12(R), 15(R), 18(R), 20(R), 21(R), 24(R), 27(R), 30(R), 33(R)	11
전체			33

(R)은 역산 문항을 의미함

#### 나. 스마트폰 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 척도인 S-척도를 사용하였다. S-척도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인터넷 중독 척도를 근간으로 개발하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의 구성은 일상생활 장애는 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은 2문항, 금단은 4문항, 내성은 4문항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상생활장애는 학교성적이 떨어지거나 계획수행의 차질, 부모와 친구와의 갈등 발생의 내용이며, 가상세계 지향은 스마트폰이 만들어 주는 가상세계를 더 선호하는 내용이다. 금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사용중단 시 느끼는 정서 및 행동반응이고 내성은 사용자의 의지와는 별개로 시간이 갈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와 시간이 늘어나는 내용이다. 각 문항은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하여 Likert식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6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는 .73, 가상세계 지향은 .50, 이었으며, 금단은 .78, 내성은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해당 문항 번호는 표Ⅲ-2과 같다.

표Ⅲ-2 스마트폰 중독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스마트폰 중독	일상생활 장애	1, 5, 9, 12, 13(R)	5
	가상세계 지향	2, 6	2
	금단	3, 7, 10(R), 14	4
	내성	4, 8(R), 11, 15	4
전체			15

(R)은 역산 문항을 의미함

#### 다.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차정은(1997)이 개발하고 김아영(1997)이 수정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했다. 하위요인별 문항의 구성은 자신감은 7문항, 자기조절 효능감은 12문항, 과제난이도 선호는 5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과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을 선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에 대한 관찰, 반응을 해나가는 효능감이며, 과제난이도 선호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난이도 수준이다. 각 문항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으로 하여 Likert식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각 영역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 척도의 전체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81, 자기조절 효능감은 .89, 이었으며, 과제 난이도 선호는 .8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해당 문항 번호는 표Ⅲ-3과 같다.

표Ⅲ-3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변인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자기 효능감	자신감	1(R), 3(R), 5(R), 10(R), 11(R), 13(R), 16(R)	7
	자기 조절 효능감	2, 4, 7, 8, 12, 14, 17, 19, 20, 21, 23, 24	12
	과제 난이도 선호	6(R), 9(R), 15, 18, 22	5
전체			24

(R)은 역산 문항을 의미함

###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는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서 사용된 각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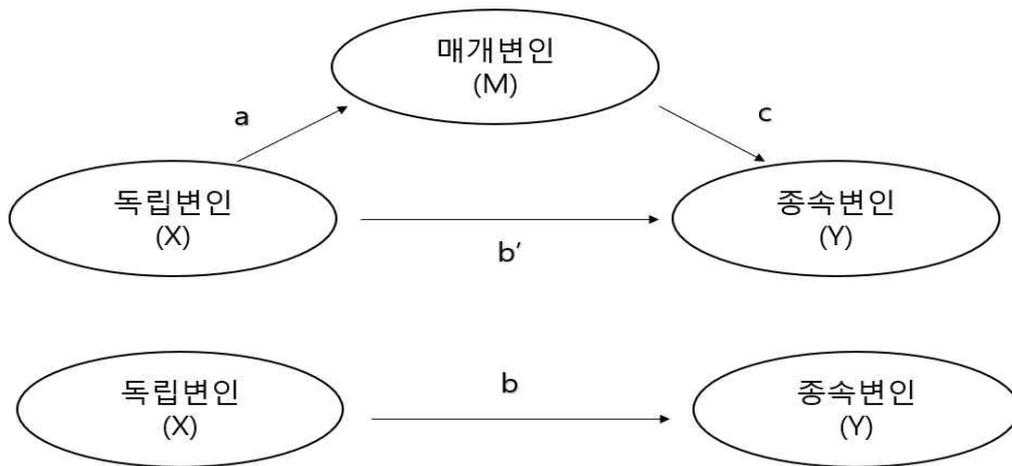
둘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스마트폰 관련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알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pearson적률상관계수(r)를 적용하였으며, 양방 검증(Tow-tailed)을 하였다.

넷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절차는 <그림1>과 같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첫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a경로). 둘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해야 한다(b경로). 셋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해야 하며(c경로),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b'경로) 두번째 단계에서보다 더 적게 나타나야 한다. 즉, 경로 b와 경로 b'를 비교했을 때, 경로 b'의 영향력이 줄어야 한다.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가지는 효과를 통제 한 후에, 독립변인이 더 이상 종속변인을 예측하지 못하면, 매개변인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가지는 효과를 통제 한 후에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예측하기는 하지만 그 효과의 크기가 줄어들 경우 매개변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III-1>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단계

여섯째,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표본 수와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매개효과의 회귀계수와 표준오차의 추출 횟수만큼 얻어낸 후, 신뢰구간을 구하는 것이다. 만약 1,000번 반복하여 표본을 추출하고 유의수준 5%라면 신뢰구간은 상위 25번째와 하위 975번째의 회귀계수 값 사이가 매개효과의 신뢰구간이 되는 것이다. 이때 0이 그 신뢰구간 사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본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211명(52.1%), 여자가 194명(47.9%)이었으며, 중학교 1학년 88명(21.2%), 2학년은 237명(58.5%), 3학년은 82명(20.2%)이었다. 사는 지역은 제주시 182(44.9%), 서귀포시 223(55.1%)으로 서귀포시 지역이 많았다.

표IV-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211	52.1
	여	194	47.9
	합계	405	100
학년	1학년	88	21.2
	2학년	237	58.5
	3학년	82	20.2
	합계	405	100
사는 지역	제주시	182	44.9
	서귀포	223	55.1
	합계	405	100

### 2. 조사 대상자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조사 대상자가 스마트폰을 처음 보유한 시기, 주로 사용하는 목적 등 스마트폰 관련 특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 표IV-2와 같다

표IV-2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N=40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스마트폰 보유시기	초등 3학년 이전	105	25.9
	초등3-4학년	157	38.8
	초등5-중학교	141	35.0
	합계	405	100.0
스마트폰 주 사용 목적	자료 및 정보획득	47	11.6
	서로 연락하기	208	51.4
	쇼핑정보, 교육 학습	13	3.2
	기타	137	33.8
	합계	405	100.0

스마트폰을 처음 보유한 시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이라고 응답한 학생 157명(38.8%)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5명(25.9%)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을 처음 보유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저연령화 됨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서로 연락하기가 208명(5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기타 137명(33.8%)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해서 확인된 결과는 다음 표IV-3과 같다.

평일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시간 이상 3시간미만으로 141명(34.8%)으로 가장 많았고 주말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4시간 이상 165명(40.7%)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 주말이 평일보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에는 221명(54.6%)이 ‘가끔 갈등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갈등을 겪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123명(30.4%), ‘자주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47명 (11.6%)이었다.

표IV-3 조사대상자의 스마트폰 관련 특성

(N=405)

	구분	빈도(명)	백분율(%)
평일 하루 평균 이용시간	0시간-1시간미만	25	6.2
	1시간-2시간미만	100	24.7
	2시간-3시간미만	141	34.8
	3시간-4시간미만	85	21.0
	4시간 이상	54	13.3
	합계	405	100.0
주말 하루 평균 이용시간	0시간-1시간미만	11	2.7
	1시간-2시간미만	36	8.9
	2시간-3시간미만	86	21.2
	3시간-4시간미만	107	26.4
	4시간 이상	165	40.7
	합계	405	100.0
부모님과 의 갈등 여부	전혀 아니다	123	30.4
	가끔 그렇다	221	54.6
	자주 그렇다	47	11.6
	아주 그렇다	14	3.5
	합계	405	100.0

### 3. 주요 연구변인 간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주요 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IV-4와 같다.

제시된 기술통계의 값을 살펴보면 변인들의 4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수용-거부 양육태도는 평균 2.96,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평균 3.49, 과잉-비과잉 양육태도는 평균 3.28를 보이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이며 성취압력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은 6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3.78를 보이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중독은 4점 척도상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1.91를 보이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IV-4 주요 연구변인들 간의 기술통계 (N=405)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수용-거부 양육태도	2.96	.57	-.28	-.32
자율-통제 양육태도	3.49	.41	-1.58	3.10
과잉-비과잉(성취압력) 양육태도	3.28	.49	-1.13	1.26
자기효능감	3.78	.74	-.04	.29
스마트폰 중독	1.91	.50	.37	-.20

#### 4. 주요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IV-5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332, p < .001$ ).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수용-거부는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 $r = .406, p < .001$ ), 자율-통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242, p < .001$ ), 성취압력과도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138, p < 0.01$ ). 즉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이며, 성취압력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종속변인 스마트폰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 = -.323, p < .001$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수용-거부( $r = -.278, p < .001$ ), 자율-통제( $r = -.238, p < .001$ ), 성취압력( $r = -.268, p < .001$ )에서 양육태도는 모두 스마트폰 중독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청소년

년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이며, 성취압력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았다.

매개변인 자기효능감과 종속변인 스마트폰 중독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80, p < .001$ ). 즉,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 주요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405)

	1	1-1	1-2	1-3	2	3
1 부모양육태도	1					
1-1 수용-거부	.791***	1				
1-2 자율-통제	.864***	.519***	1			
1-3 성취압력	.802***	.340***	.669***	1		
2 자기효능감	.332***	.406***	.242***	.138**	1	
3 스마트폰 중독	-.323***	-.278***	-.238***	-.268***	-.380***	1

\*\*\* $p < .001$ , \*\* $p < .01$ , \* $p < .05$

## 5. 부모양육태도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인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과잉-비과잉)을 각각 회귀식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6와 같다.

표IV-6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N=405)

독립변수	매개변수	R <sup>2</sup>	F	B	SE	$\beta$	t
수용-거부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165	79.550***	.525	.059	.406***	8.919
자율-통제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059	25.054***	.432	.086	.242***	5.005
성취압력 양육태도	자기효능감	.019	7.846**	.205	.073	.138**	2.801

\*\*\* $p < .001$ , \*\* $p < .01$ 

수용-거부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 (79.550,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이 16.5%를 보이고 있다.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 (25.054,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이 5.9%를 보이고 있다.

성취-압력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 (7.846,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의 설명력이 1.9%를 보이고 있다.

## 6.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인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과잉-비과잉)을 각각 회귀식의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N=405)

독립변수	종속변수	R <sup>2</sup>	F	B	SE	$\beta$	t
수용-거부 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	.077	33.654***	-.246	.042	-.278***	-5.801
자율-통제 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	.057	24.206***	-.291	.059	-.238***	-4.920
성취압력 양육태도	스마트폰 중독	.072	31.121***	-.272	.049	-.268***	-5.579

\*\*\* $p < .001$ 

수용-거부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 (33.654,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수용-거부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7.7%를 보이고 있다.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 (24.206,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자율-통제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5.7%를 보이고 있다.

성취-압력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 (31,121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성취-압력 양육태도의 설명력이 7.2%를 보이고 있다.

## 7.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가.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IV-8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5)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수	R <sup>2</sup>	F	B	SE	$\beta$	t
1	수용-거부	자기효능감	.165	79.550***	.525	.059	.406***	8.919
2	수용-거부	스마트폰 중독	.077	33.654***	-.246	.042	-.278***	-5.801
3	수용-거부 자기 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163	39.113***	-.130 -.219	.044 .034	-.147** -.321***	-2.953 -6.420

\*\*\* $p < .001$ , \*\*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예측변수인 독립변인 수용-거부 양육태도는 준거변수인 매개변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406, p < .001$ )이, 유의미하였으며 2단계에서 수용-거부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78, p < .001$ )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 = -.321, p < .001$ ). 이때 수용-거부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 회귀계수( $\beta = -.278, p < .001$ )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므로( $\beta = -.147, p < .01$ )수용-거부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수용-거부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이 7.7%인 반면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16.3%로 3단계에서보다 8.6% 증가하여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용-거부 양육태도의 통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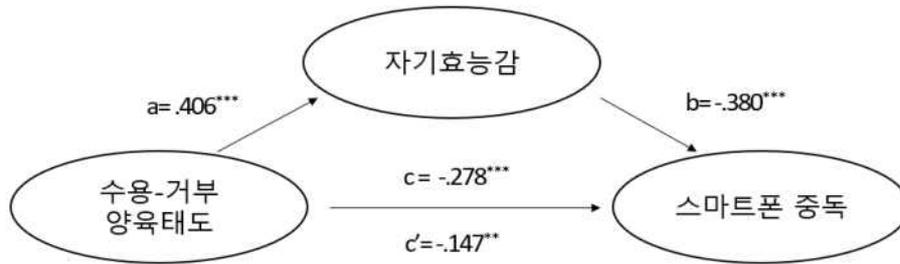


그림 IV-1 수용-거부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모형

중학생이 지각하는 수용-거부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의 자기효능감 매개 효과를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 IV-9과 같이 매개효과의 추정치( $\beta$ )가 영가설에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IV-9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559)

경로	$\beta$	SE	BootLLCI	BootULCI
수용-거부 양육태도 → 자기효능감 → 스마트폰 중독	-.1151	.0281	-.1772	-.0663

나.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5)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수	R <sup>2</sup>	F	B	SE	$\beta$	t
1	자율-통제	자기효능감	.059	25.054***	.432	.086	.242***	5.005
2	자율-통제	스마트폰 중독	.072	31.121***	-.272	.049	-.268***	-5.579
3	자율-통제 자기 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167	40405***	-.189 -.234	.057 .032	-.155** -.343**	-3.306 -7.311

\*\*\* $p < .001$ , \*\*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예측변수인 독립변인 자율-통제 양육태도는 준거변수인 매개변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242, p < .001$ )이, 유의미하였으며 2단계에서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68, p < .001$ )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 = -.343, p < .01$ ). 이때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 회귀계수( $\beta = -.268, p < .001$ )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므로( $\beta = -.155, p < .01$ ) 자율-통제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이 7.2%인 반면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16.7%로 3단계에서보다 9.5% 증가하여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율-통제 양육태도의 통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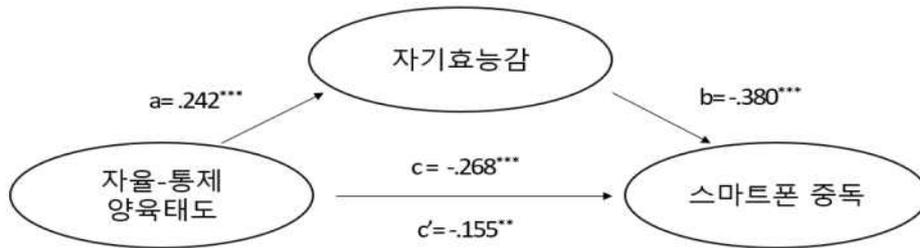


그림 IV-2 자율-통제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모형

중학생이 지각하는 자율-통제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의 자기효능감 매개 효과를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IV-11과 같이 매개효과의 추정치 ( $\beta$ )가 영가설에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IV-11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559)

경로	$\beta$	SE	BootLLCI	BootULCI
자율-통제 양육태도 → 자기효능감 → 스마트폰 중독	-.1013	.0310	-.1693	-.0492

#### 다. 성취압력(과잉-비과잉)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부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중, 성취압력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의 결과는 표IV-12와 같다.

표IV-12 성취압력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N=405)

단계	예측변수	준거변수	R <sup>2</sup>	F	B	SE	$\beta$	t
1	성취-압력	자기효능감	.019	7.846**	.205	.073	.138**	2.801
2	성취압력	스마트폰 중독	.057	24.206***	-.291	.059	-.238***	-4.920
3	성취압력 자기 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192	47.742***	-.223 -.239	.046 .031	-.219*** -.350***	-4.846 -7.734

\*\*\*  $p < .001$ , \*\*  $p < .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예측변수인 독립변인 성취압력 양육태도는 준거변수인 매개변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138, p < 0.01$ )이, 유의미하였으며 2단계에서 성취압력 양육태도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38, p < .001$ ).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beta = -.350, p < .001$ ). 이때 성취압력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 회귀계수 ( $\beta = -.238, p < .001$ )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므로( $\beta = -.219, p < .001$ ) 성취압력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 효과가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단계에서 성취압력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이 5.7%인 반면 3단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모형의 설명력은 19.2%로 3단계에서보다 13.5% 증가하여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취압력 양육태도의 통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IV-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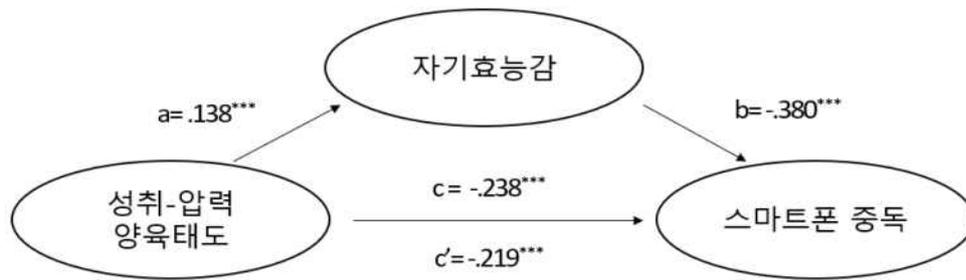


그림 IV-3 성취압력(과잉-비과잉)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모형

중학생이 지각하는 성취- 압력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의 자기효능감 매개 효과를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검증한 결과 표IV-13과 같이 매개효과의 추정치( $\beta$ )가 영가설에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IV-13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N=559)

경로	$\beta$	SE	BootLLCI	BootULCI
성취압력 양육태도 → 자기효능감 → 스마트폰 중독	-.0492	.0223	-.0979	-.0108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은 서로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에 따라 서로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용-거부 양육태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자녀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낮아졌으며, 자율-통제 양육태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수준이 낮아졌다. 과잉-비과잉 양육태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압력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이 부족하고 강제적이고 성취압력이 높으며 비합리적이라고 자녀가 지각할 때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이성희, 2002)를 지지하며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높인다는 연구(김태진, 2004),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핸드폰 중독과 또래관계 미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정복자, 2009), 핸드폰 중독과 정적상관이 있다는(김용진, 2005) 연구들과 일치한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용-거부 양육태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일수록 자녀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졌으며, 자율-통제 양육태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율적일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높아졌다. 과잉-비과잉 양육태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압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이는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균형 잡힌 어머니의 민주적 양육유형이 온정이 낮고 통제가 강한 권위적 양육 유형에 비해 아동의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는 연구(공인숙, 1989) 결과를 지지하며, 또한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노호은, 2000)결과와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자녀의 인격 형성 및 긍정적

부정적 자기효능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한 연구(한승미, 200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민주적일수록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거부적이고 제재적이며 권위적일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송이, 2006)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셋째, 높은 자기효능감은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과 자신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다(정인경, 2015)는 연구결과와 스마트폰 중독 집단이 비 중독집단에 비해 자기조절 효능감과 어려움 극복 효능감에서 낮게 나타났다(이진숙, 2015)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서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단일 변인 간의 관계와 변인 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즉, 청소년들이 가족과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원활하지 않은 또래관계, 학업등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면 스마트폰 중독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있는 청소년들도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집단 프로그램이나 상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스마트폰 중독을 잘 극복할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스마트폰 중독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 환경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이 복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사회의 문제점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부모의 양육태도(수용-거부, 자율-통제, 성취압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즉,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지지하며, 자녀로 하여금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자녀인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낮아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성취압력이 높을 때 즉, 자녀가 성적이 뛰어나고 일류 상위학교에 진학하여야 한다는 것을 과도하게 심어주게 되면 이를 자녀가 의식하게 되면서 그 반사적인 행동으로 스마트폰에 몰입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지적하고, 나무라고, 지시하고, 때로는 강한 명령과 금지, 심지어 체벌로서 양육하는 방법을 지양하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위시한 우리 사회의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이 변화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일류대학에의 진학, 높은 사회적 지위 등이 삶의 최상의 가치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몰입은 불가피하게 생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양한 요인들을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일차적인 가정환경, 특히 부모양육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이 자기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준거의 틀로 작동한다. 이렇듯 부모양육태도가 개인적으로나 더 나아가 사회, 국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부모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선 부모가 양육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부정적인 양육형태가 나타나는 원인 및 양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사회는 예전에 비해 부모들의 교육, 경제, 사회적 수준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의 수준도 높아졌지만 실제 행하여지는 양육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가정, 사회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오래전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처럼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고 경제적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며 자녀의 수도 지금처럼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느정도 참고 인내하는 훈육과 인간적인 관심을 양육의 덕목이라 생각하고 실천하였다. 이는 학식과 무관하게 실천할 수 양육태도일 것이

다. 결국 좀 더 나은 양육태도의 방법 중 가장 우선은 부모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훈육, 인간적인 관심 등을 실천해나가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자녀 수 감소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심이다. 이는 자녀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의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빠른 경제적 변화와 취업여성의 급증,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은 양육자의 부재 혹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 부모로서 가치관의 부재이다. 부모양육과 교육에 대한 정보는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부모됨에 대한 철학이 없다. 그 결과 자녀양육을 부담스러워한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의 부모양육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육아정책과 부모됨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부모교육은 가족의 발달주기를 고려하여 자녀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고 의식과 태도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외에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그 부모 역시 어릴 적부터 부정적인 양육을 받고 자라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굳어진 성격 및 양육태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불안정적인 성격특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신경증적인 성격특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부모가 현실에서 오는 불안과 불만 등으로 인해 힘없는 자녀에게 분출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부모가 양육방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습관적으로 무의식중에 나타나는 행동특성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을 하기 위해 부모 자신이 성격을 이루고 있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감정 상태를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자각이 없으면 과거의 습관, 방식에 기초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상담이나 정기적인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점검하고 생활속에서 의식화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불안정한 경제활동과 소득수준, 주거환경, 취약한 정보습득 등의 사회불평등이 원인인 경우는 정부지원 및 복지 차원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나 아동의 심리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

하여 양육태도가 부정적인 경우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부모양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1:1 현장 사례개입을 통한 맞춤형 돌봄 및 양육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해 본다.

한편 무엇보다 현재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관련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1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작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조차 없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의무화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즉,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중등교육과정에 아동심리발달 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개설하고 단계적으로 확장,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대학교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해서 반드시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세상에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부모가 처한 현실적인 여건과 양육방식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이로 인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양육을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려서는 안된다. 부모양육과 관련한 부분은 사회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청소년 자신이 자기효능감이 높다면 부모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 자신을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응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성적위주의 획일화된 교육방식보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전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지식위주의 교육과정보다는 개인의 인성, 가치관, 개인적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시키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의 교사들 또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세워 관리하기보다는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학생의 소질과 장점, 특기를 살리는 과목을 개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을 돕고 상담하며 자기효능감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성적 순위에서 밀려나 좌절감을 느끼는 많은 학생들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있는 현실은 학교 교육환경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평일보다 등교하지 않은 주말에 스마트폰 사용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은 주말이나 방학 동안, 특히 요즘 코로나 19의 여파로 등교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욱더 스마트폰에 장시간 몰입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해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져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이와 관련된 부모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양육방식,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이해,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개입을 위한 부모의 참 만남 집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모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은 정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문화를 창달하여 청소년이 스마트폰 사용보다 더 즐거운 유익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모교육, 상담프로그램, 문화창달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미성년자 대상 스마트폰 판매금지를 법제화하고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을 제작, 보급하여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현재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단체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률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부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스마트폰 중독률이 높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컴퓨터보다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 기기는 편리성, 즉각성, 감각추구, 소통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특성들로 인해 이전의 어떤 미디어 기기보다 훨씬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의 중독적 특성들은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통제와 조절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발달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에 비해 쉽게 중독이 되고 중독에 무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성이 매우 높아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셋째, 청소년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대화할 수 있어 친구집단에서 따돌림이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18년 4월 30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초, 중, 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기본 기능이 탑재된 핸드폰만 소지 개통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되었다. 한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이 같은 법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밝혔다. 청원인은 ‘단독방 왕따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유해컨텐츠들을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공유할 수 있고 호기심에 보게 되고 원치 않더라도 무방비적으로 주소를 받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 범죄의 덫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로 2017년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만 13세 어린이에게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입법안이 추진이 되었다. 이 입법안을 추진한 콜로라도 의사인 팀 패덤 씨는 ‘스마트폰 중독은 어린이에게 굉장히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써 어린이에게 해로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비슷한 규제가 생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중독적 특성과 청소년기의 특성, 사례들을 종합해볼 때, 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의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및 담배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듯이 스마트폰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정부는 대기업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보다 국가의 소중한 미래 자원인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데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에 대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시, 서귀포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포함하여 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를 보면 시내권의 학생 비율이 높고 특히 1,2,3학년중에 2학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역선정과 청소년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년 층을 조사하여 연구결과가 제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환경적 변인으로 부모양육태도와 개인 심리내적 요인으로 자기 효능감을 가정하였지만 이 둘의 변인만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특히 부모의 심리내적인 요인과 가족의 구조적 측면,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아동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에 더욱더 취약할 수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실제 양육태도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실제 양육태도보다 더 정확한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문지 작성 시점 전 후 부모와의 갈등 혹은 칭찬이나 기대, 호응 등으로 생긴 일시적인 강한 정서가 개입되어 설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설문조사 시 설문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요구되어 진다.

## 참고문헌

- 강민주(2013). 소셜미디어 사용에 따른 청소년과 성인초기의 자아정체감 및 친밀감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0(6), 1-28.
- 강성일(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희양, 박창호(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강혜자(2011). 지연행동, 자기효능감, 자기통제 및 지각된 스트레스간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35(2). 전북: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고재욱(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동철학학회지** 63권 1-38.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 김경신, 김진희(2003). 청소년의 심리적 변인과 인터넷 중독,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5(1).85-97
- 김교현(2007). 중독, 그 미궁을 헤쳐나가기. **한국심리학회지:건강**, 12(4). 677-639
- 김기정(1984). **학업성취와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년, 최홍일(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보연(2012) **고등학생의 인터넷 게임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과 수면부족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 11(2). 서울 : 한국교육심리학회.
- 강옥순, 송혜영(1998). **통신중독증-정보사회와 청소년**. 서울: 한국청소년 문화연구

소.

- 김용진(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폰 과다사용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재(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의사결정 유형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정인경. (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교육학회지**, 27(1), 111-126.
- 김정애(2006).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형(200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경향에 다른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 에 대한 지각 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진(201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 요인과 이용 행동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55-93.
- 남미숙(1998). **초등학생의 진로 자아효능감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용철 (2005).**사용자의 특성이 온라인 게임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자극추구성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호은(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 공격성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미숙, 권미경(2011). **휴대폰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학회지**, 14(2),76-83.
- 문두식, 최은실 (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10), 213 - 236.
- 박용민(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근(2002)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적 사용 및 영향 변인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선(2012) **청소년 및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미(201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훈미(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자(2006).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소진, 오홍석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 대인불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5), 31-54
- 방송통신위원회. **2018년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지도를 위한 가이드북**
- 송원영(1998).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력이 인터넷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명숙(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 지능간의 관계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현(2009). **학생이 지각하는 담임교사의 의사소통 유형, 담임교사에 대한 신뢰,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지혜(2012). **고등학생 개인, 부모, 또래 및 스마트폰 이용동기 요인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구조적 관계분석**.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세라(2003). **인터넷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인천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 2015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조사**
-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외적 특성과의 관계**. 서울: 한국행동과학연구소

- 우상우, 박기쁨, 정성훈, 장문선(2010). 행동중독의 예측인자로서 인자특성, 정서특성, 자아특성. **대한동서정신과학학회**, 13(1), 19-36
- 우영숙(2008).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주(2015).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충동성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7(4). 998-1012.
- 유홍식, 김찬원(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62.
- 이경애(2012).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및 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만제(2009) 대인 커뮤니케이션 특성 및 자아성향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커뮤니케이션 회피성향, 가족커뮤니케이션 유형,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3), 서울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이미란(2012).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효능감 및 갈등관계.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대, 염동문, 김서정(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5-75.
- 이보경, 이재창(2003) 초등학생의 학습된 무기력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2).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성희(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송이(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61-71
- 이장형, 김종원, 성백춘, 최영진(2013). 자기효능감에 의한 스마트폰 사용의도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8(2), 157-164.

- 이진숙. (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인식과 인간관계 및 심리특성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경(2008)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엄옥연(2010).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에 관한 연구 : 우울과 자기통제력 중심으로**.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주리. (2014). **청소년의 자극추구성향 및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령, 안세지, 김성희(201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동서정신과학회**, 20(1), 33-45.
- 용상화(2013).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자기효능감, 자기 통제력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선, 이정연. (200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한국생활과학회지**, 12(4), 433-447
- 전선혜(1992). **자기효능감 및 불안과 스포츠 수행과의 구조적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우귀(2007). **대학생과 부모의 인간관계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에 대한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4(2), 1-17.
- 전은영(200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영향 요인**. 동서간호학연구지, 11(2).
- 정귀임(2015).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2001).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 지역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은희, 이경순(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스마트폰 중독 간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교육정보미디어 연구**. 23(4).
- 최영철(2016). **스마트폰 중독 여부별 성별 중독병리, 자기효능감,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 중학교 남녀 학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우기(200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도.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승미(2004).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 문수백(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5(5), 457-476.
- 한주리, 허경호(2004). 휴대전화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60), 138-165
- 홍현경(2012). 자기효능감이 직무착근도, 혁신행동과 조직구성원행동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내 특1급 호텔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황상민(2000). 신세대(N세대의 자기표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사고와 행동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9-19.
- 황승일(2013).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자, 최윤희(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학회*, 제22권, 285-304.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ecker, W.C. and Krug, R. S.(1964). The parent Attitude Reasearch Intrument: *A Research Review, Child Development, Vol.36*.
- Becker, W. C.(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
- Cheon, E. J.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 and internet/smartphone addiction in the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buk, Korea.
- Cho, J. H., Kim, D. G., & Heo, G. (2013). The influence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ir self-efficacy and social development.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5(3), 613-624.
- Egger, O. and Rauterberg, M. (1996). *Internet Behavior and Addiction. Work and Organisational Psychology Unit*, 1-173.
- Fishbein, M. S.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 Kim, H. J., Kim, J. H., & Jeong, S. H. (2012). Predictors of samrtphone addiction and behavioral pattern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4), 55-93.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4). *Investigation of Internet Addiction in 2013*,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Parker, J. G. Tupling, H., & Brown, L. B.(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 Rosen, (2008), The association of parenting style and chid age with parental limit seting and adolescent My Space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59-471
- Ryu, M. (2014). University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propensities according to self-efficacy and leisure-related variabl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2(1), 63-79.
- Symonds, Perial M.(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ublication.
- Woo, H. J. (2007). A study on the influence of mobile phone users' self-traits

on mobile phone addiction - focusing on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1(2), 391-427.

Young, K. S.(1998).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 Behavior*, 1(3), 237-244

Zuckerman, M.(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The Effects of Parent's Attitude Percie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Yang Moon Sae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g-B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um effect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an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martphone addiction through such verification and provide basic dat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what is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smartphone addiction? Second, how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ird, does self-efficacy work as a mediu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survey for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students using smart-phone in 1st-3rd grade in 5 middle schools, located in Jeju island, Jeju City, Seogwipo City. This study was used SPSS Win 18.0 and Process macro 23.0 for analysis. In order to measure the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s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variable used,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s were examined,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 addition, a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parental attitude and self-efficacy on smartphone addiction. Also, using the Bootstrapping, model verification was conducted through using Process macro 23.0 to verify the medium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 to parental attitude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e,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which teenagers are late for school, First, There is meaningful cor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smartphone addiction. Second,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smartphone addiction are showing are inversely correlated. Third, self-efficacy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smartphone addiction.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The implication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prevention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Key word: parental rearing attitude, smart phone addiction, self-efficacy, mediating effect.

<부록>

## 설문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스마트폰 사용과 여러분의 자기효능감,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부모님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지에 나타난 질문사항에 대한 응답은 맞거나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빠짐 없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결과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양 문 생

### 《 주의사항 》

1. 정확한 연구를 위하여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하여 주세요.
2. 정답이 없으므로,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지 마세요.

1.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표 하세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떨어져 오랫동안 살고 계실때는 현재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는 분을 부모님라 생각하세요.)

문항	전혀	가끔	자주	항상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 우리 부모님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1	2	3	4
2. 나는 우리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다.	1	2	3	4
3. 우리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신다.	1	2	3	4
4. 우리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	1	2	3	4
5. 우리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잠깐만 만나도 야단치시며 공부만 하라고 하신다.	1	2	3	4
6. 우리 부모님은 내가 조금이라고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	1	2	3	4
7.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이 있더라도 칭찬해 주시는 일이 없다.	1	2	3	4
8.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이라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크게 야단을 맞는다.	1	2	3	4
9. 나는 학교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님으로 부터 심한 꾸중이나 벌을 받아야 한다.	1	2	3	4
10. 우리 부모님은 나와 이야기할 때 언제나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1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간섭하시기를 좋아하신다.	1	2	3	4
12.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수” 혹은“A(최고등급)”를 받아야만 만족해 하신다	1	2	3	4
13.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하신다.	1	2	3	4

문항	전혀	가끔	자주	항상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14.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나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시는 편이다.	1	2	3	4
15.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을 잘하십니다.	1	2	3	4
16. 우리 부모님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나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 알아차리십니다.	1	2	3	4
17.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2	3	4
18. 우리 부모님은 오직 공부밖에 모르십니다.	1	2	3	4
19. 우리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주십니다.	1	2	3	4
20. 우리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다.	1	2	3	4
21.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 성적이다.	1	2	3	4
22.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잘 하십니다.	1	2	3	4
23.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 하게 하십니다.	1	2	3	4
24.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하십니다.	1	2	3	4
25. 우리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내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 한다.	1	2	3	4
26.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1	2	3	4
27. 우리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1	2	3	4

문항	전혀	가끔	자주	항상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28.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1	2	3	4
29.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1	2	3	4
30.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1	2	3	4
31.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심부름을 잘못하였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곤 한다.	1	2	3	4
32.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관한 일도 부모님 마음대로 정하여 버리신다	1	2	3	4
33. 우리 부모님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 바라신다.	1	2	3	4

2. 다음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가진단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표 하세요.

문항	그렇지 않은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졌다.	1	2	3	4
2.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1	2	3	4
3.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1	2	3	4
4.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	2	3	4
5. 스마트폰 사용으로 계획한 일(공부, 숙제 또는 학원수강)을 하기 어렵다.	1	2	3	4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1	2	3	4
7.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1	2	3	4
8.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9.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11.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한다.	1	2	3	4
12.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1	2	3	4
13.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	2	3	4

문항	그렇지 않은편 이다	보통 이다	그런편 이다	매우 그렇다
14.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을 때 패닉(공황,돌연한 불안 이나 공포)상태에 빠진다.	1	2	3	4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 었다.	1	2	3	4

3.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표 하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울감을 느낀다.	1	2	3	4	5	6
2. 나는 일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6
3.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	2	3	4	5	6
4. 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6
5.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	1	2	3	4	5	6
6. 나는 쉬운 것일수록 좋다.	1	2	3	4	5	6
7. 나는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낼 수 있다.	1	2	3	4	5	6
8.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판단할 수 있다.	1	2	3	4	5	6
9. 만일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6
10. 나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는다.	1	2	3	4	5	6
11.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1	2	3	4	5	6
12.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판단은 대체로 정확하다.	1	2	3	4	5	6
13.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모든 일에서 뛰어난 것 같다.	1	2	3	4	5	6

문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니 다	약간 그렇 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4. 나는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비추어서 일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1	2	3	4	5	6
15. 좀 실수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6
16.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황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1	2	3	4	5	6
17. 나는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6
18. 어렵거나 도전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재미나는 일이다.	1	2	3	4	5	6
19. 나는 계획을 잘 짤 수 있다.	1	2	3	4	5	6
20. 나는 일이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바로잡을 수 있다.	1	2	3	4	5	6
21.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2	3	4	5	6
22. 나는 아주 쉬운 일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6
23. 나는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	1	2	3	4	5	6
24. 어떤 일이 처음에 잘 안되더라도 나는 될 때까지 해 본다.	1	2	3	4	5	6

■ 다음은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남    ②여
2. 학 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3. 사는 지역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4. 스마트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요
5. 가지고 있다면 언제 스마트폰을 처음 가지게 되었습니까 ?  
① 초등학교 3학년 이전    ② 초등학교 3-4학년    ③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6. 현재 스마트폰을 주로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① 자료 및 정보획득    ② 서로 연락하기    ③ 쇼핑정보    교육, 학습    ④ 기타
7. 평일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  
① 0시간-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8. 주말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  
① 0시간-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9. 스마트폰 사용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고 있나요?  
① 전혀 아니다    ②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